

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이야. 나는 이러한 원칙을 예외 없이 모든 것에 적용하고 있지. 허나 중용을 지키자는 나의 조언이 어찌 막대한 재산에 대한 환상을 거스를 수 있겠으며, 내가 지켜온 자연이성이 어찌 세상의 신입견뿐 아니라 라 투르 부인이 신성시해온 권위를 거스를 수 있었겠나? 그러니만큼 부인은 그저 예의상 나에게 의견을 구했을 뿐, 고해신부의 결정이 있는 뒤로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네. 비르지니의 재산이 자기 아들에게 득이 되길 바라면서도 그 아이가 떠나는 것만큼은 강하게 반대했던 마르그리트조차 더는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지. 폴로서는 일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었는지 모르고 있다 보니, 라 투르 부인이 딸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 겁을 먹고는 침울한 슬픔에 빠졌다네. 폴의 말로는, “나한테 뭘가 숨기는 걸로 보아하니, 뭘가 내가 싫어할만한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”라는 게야.

그러던 와중에 이 바윗골에 돈이 흘러들었다는 소문이 섬에 퍼지면서, 온갖 종류의 상인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이곳까지 기어들어 왔네. 상인들은 이들 가족의 빈한한 오두막 가운데에다가 인도에서 온 가장 값비싼 천들을 펼쳐놓았지. 쿠달로르산 최고급 바장에, 폴리카트나 마술리파탐에서 만들었다는 여성용 머릿수건도 보였고, 다카에서 왔다는 모슬린은 단색도 있고, 줄무늬가 들어간 것도 있고, 자수를 놓은 것도 있었지만, 어찌 햇빛처럼 투명한 것도